

스마트전장부품 생태계 조성 추진

전북도,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발맞춘 신산업 동력 발굴·지원키로

최근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정보화 기술(IT) 융합, 안전기술 강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분야는 글로벌 트렌드인 내연기관 판매금지'에 대한 빠른 대응 마련이 중요한 분야이다.

전북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기업을 포함하여 새만금지역 등에 신규로 친환경 자동차 양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입주기업들이 조기에 양산 모델을 개발하고 핵심 전기전장 부품들을 지역 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도내의 현대자동차, 티타대우 자동차 2개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상용차, 수소상용차 및 전기차 특장 등) 생산에 따라 관련 부품 수요가 예상되는 한편, 새만금 등으로 신규 전기차 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5개사의 양산차량(승용 전기차, 소형 전기버스/트럭, 전기차 특장 등)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

이 가능하도록 지역내 부품기업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 부품조달이 가능하도록 산업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지역내 혁신기관에서 구축된 친환경차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부품기업들의 다양한 친환경차 핵심 전기전장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시장 창출과 기술선점이 가능하도록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전장부품 스마트화 지원사업, 전장부품기업 현안해결 리빙랩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 창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2억원을 투입해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도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들이 참여하는 '전기·전자·소프트웨어 융합 컨퍼런스' 및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 등 협업체를 운영하며

전기·전자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관 간 소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전장부품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새만금 신단에 전기·전장 핵심 부품 솔루션 지원을 위해 13개 장비를 포함한 공동연구센터와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테크비즈 프라자를 구축하는 등 전라북도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다.

전북도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 부품기업 주력제품의 전장부품화나 상용특장차, 건설기계 등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지역 산학연 공동체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스마트 계량기 세계시장 진출 기반 구축

도-동호코스모 투자협약 체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은 지난 21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주)동호코스모와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80억 원 규모의 '철단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과 스마트 계량기(가스, 전기, 냉·온수, 열량 등) 생산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주)동호코스모(대표 정광구)는 그동안 대구공장에서 정밀 계측기의 몸체를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AMI 측정관리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

에서 조립·제조와 설치·운영에 온전전 기업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계량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도 공장을 설립했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주택·공공 서비스부와 국영 에너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맺고 연간 100만대의 계량기 공급 예정으로 새만금신단에서 생산한 계량기는 우즈베키스탄에 전량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스마트 계량기 시장의 빠른 확산 추세와 개발도상국의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이 전방위에 따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새만금에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앞으로 새만금신단에 동호코스모가 입주하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고용인원은 130여명, 도내 조달 부품생산에 참여하는 직·간접 고용인원은 530여명이 예상되고, 국제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연간 약 3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임명연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중앙아시아 등 대륙 진출을 꿈꾸는 동호코스모의 새만금신단 투자가 감사하고 공장 설립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우리 전라북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동호코스모의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확대로 새만금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발

전북도는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8월 19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지난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인대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및 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사상 분야를 8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통합했으며,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추천권한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존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 실시된다.

추천대상은 혁신, 경제, 문화, 나눔의 4개 분야에서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자이며, 도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의 장 및 20명 이상의 전라북도민이 연서한 경우 도민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기간은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60일간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및 시군 자치행정부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지금까지 모두 151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도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지난해에는 농가소득증대와 한우산업 안정화에 기여한 완주한우협동조합 조영호 이사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시상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21일 김제시체육관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송성환 도의회 의장, 김중희 국회의원, 시군 청원경찰 및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전북 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북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 성료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도 및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최근 도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모악홀에서 '2019년 전라북도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전북도,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주최·주관하며 의사, 감염관리 실장 및 간호사 등 도내 의료기관중사자, 도 보건

의료, 시·군보건소(보건의원) 감염병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도내에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 및 치료',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용 과장의 '의료관련감염병(CRE)의 이해 및 관리방안' 전라북도청 보건

의 이해와 관리'이다.

세미나를 통해 최근 도내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하여 도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의 기회가 되었길 기대한다.

또한,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도 및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도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향후 감염병 분야로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대한민국 축산 기술의 미래 '매우 맑음'

전북대, 새로운 가축질병 방어 시스템 제시
한우 맞춤형 유전자 칩과 암수 성 결정 키트 개발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으로 산업화 견인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화교 교수)은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농업기술박람회'에서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의 동물·축산 분야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축산 기술의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사업단은 한우와 유용미생물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해 가축 분뇨와 축산 배설물 해결할 수 있는 가축질병 방어 시스템을 소개하고, 한우 개량을 위한 유전자 칩과 암수 성 결정 키트를 선보였다.

먼저 사업단이 소개한 생물학적 가축질병 방어 시스템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기술로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으로 불린다.

모델농장인 두지포크 농장에서는 돼

지 1두당 하루에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 및 배양액을 공급하며, 이는 일일 배양에서 사용하는 유용미생물 양보다 100배 이상 많다.

돼지가 매일 고농도의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이 튼튼해지면서 구제역과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이 강해지고 축사·분뇨 냄새가 줄어든다.

사업단 연구 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먹고 자란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90%로 매우 높았다.

한우 맞춤형 유전자 칩은 53,866개의 한우 유전정보가 하나의 칩에 저장되어 육질, 육량, 유전성 질환 여부, 번식 능력, 친자 확인이 가능하고 송아지의 개량(성장) 방향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어 개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칩은 외국 상용제품과 달리 한우 고유 유전정보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존 대비 4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친자 확인 시 친자 일치 여부를 넘어서서 아버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친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이화교 단장은 이날 박람회에서도 열린 농업기술 미래전망대회에서 '축산과학기술 미래기술수요 및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단장은 "이날 박람회는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국내 농축산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지포크 윤진원 사장은 "연구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과학적 연구 결과 덕분에 새로운 개념의 고품질 축산물 탄생했다"며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축산 경쟁력 기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